중동, 에틸렌 생산 1000만톤 확장

MEES, 2004-2010년 150억달러 투입 … SABIC은 EG 19% 점유

페르시아만 연안 중동국가들이 2004-2010년 150억달러를 투자, 1000만톤 이상의 Ethylene 크래커를 확충하고, 생산 에틸렌의 2/3 이상을 PE(Polyethylene) 생산에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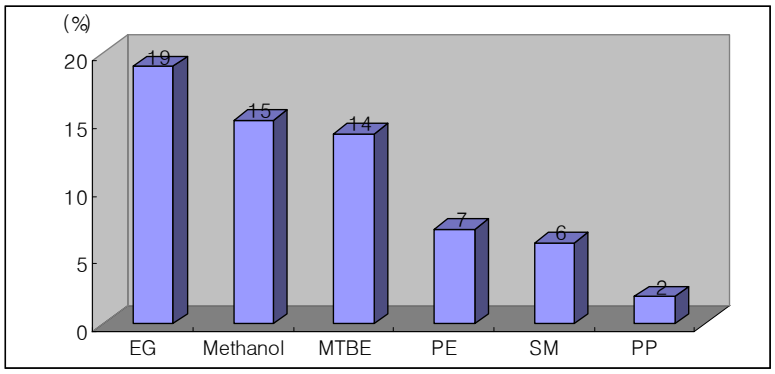
MEES에 따르면, 현재 건설공사를 진행중인 에틸렌 크래커 프로젝트는 이란이 Bandar Imam 및 Assaluyeh에서 450만톤, 사우디가 100만톤으로 나타나고 있다.

또 계획중인 에틸렌 크래커 프로젝트는 사우디 380만톤, 이란 250만-280만톤, 쿠웨이트 85만톤, 카타르 210만-240만톤, UAE 130만톤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.

중동의 에틸렌 크래커 확장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중동국가들은 2010년 세계 PE 생산의 8%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현재 세계 PE 시장은 공급부족을 겪고 있으며, 특히 아시아·서유럽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SABIC의 세계시장 점유율



세계 PE 수요는 연평균 5%, 아시아는 6.8% 증가할 예상되고 있다.

한편, SABIC은 2001년 EG(Ethylene Glycol) 생산능력이 230만톤에 달해 세계 전체의 19%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.

SABIC의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 및 세계시장 점유율은 메탄올 410만톤(15%), MTBE 290만톤(14%), PE 280만톤(7%), Styrene 110만톤(6%), PP 60만톤(2%)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.

SABIC은 석유화학 생산제품 3200만톤 중 60%를 수출하고 있으며, 사우디의 비 석유제품 수출의 6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.

SABIC은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2000년 9억6800만달러에서 2001년 4억8000만달러로 줄었으며, 2002년 1-9월에는 5억4400만달러를 기록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0/27>